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계획을 청취하시고 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켓은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 413. 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착륙되었다.

시험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 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특성이 입증되었으며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에서 70일전투때와 마찬가지로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려 조국강산을 진감시키였다고,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후련한 이 승전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우리의 힘,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전략무기개발과정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령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자기 령도자,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애국충정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당에서 고도로 중시하고있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들은 물론 전세계가 이번 탄도로켓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전략적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 전략적공격수단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대성산》 상표를 단 인기있는 체육기자재들

—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아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얼마전 우리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새로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았다. 아담하면서도 깨끗한 건물들과 잘 조성된 녹지들, 울창한 수림을 이룬 나무들,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휴식터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장식하지배인은 《얼마전 새로 현대적으로 일떠선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국국건설을 위해 큰일을 해놓았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제품본실에 들어선 우리는 탄복을 금할 수 없었다. 질 좋은 축구공, 롱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공들과 권투장갑, 운동복, 운동기재 등 《대성산》 상표를 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품본실에서 우리는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주체48(1959)년 4월 창립된 공장은 당시 피대선반, 프레스, 연마기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설비 30대를 갖춘 자그마한

공장에 불과하였다. 철판이나 아령과 같은 단순한 운동기자재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1987년에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새로 건설되어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였다.

그 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될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신고 형성안과 함께 공장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들과 건설력량들을 보내주시어 오늘과 같이 훌륭한 체육기자재공장을 세워주시었다.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를 새겨안으며 우리는 공만드는 작업의 첫 공정인 로라작업장을 거쳐 내피작업장에 들어선다. 거기서 우리는 한 녀성로동자로부터 공내피에 자동적으로 실을 감는 기계의 동작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검은색의 공내피에 흰실들이 얼마나 고르게 감겨지는지 공내피가 순식간에 흰색으로 변하는것이 불수록 멋이 있었다. 실감기를 한 바퀴 돌려가 온도, 고압증

기내는 시간, 배기시간, 흡풍기유지시간을 설정한 자동가속불입기를 거치고나니 몇분만에 여러 색깔의 가죽쪽들이 땀시 있게 붙여진 공으로 완성되었다.

완성다림작업까지 거친 매끈한 공을 두손으로 가볍게 튕겨보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더 회한한 구경거리가 있다며 걸음을 성큼 내짚었다. 그의 뒤를 따라 제품창고에서 걸음을 멈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양한 종류의 공들이 그야말로 공사태를 방불케 하였었다. 각종 장갑, 그물 등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도 창고가 터질듯이 가득 차 있었다.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공장에서 1만 여개의 각종 공제품들과 1000여개의 장갑 등 많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였다는 지배인의 자랑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이 공장의 자랑은 제품검사에서에서도 울려나왔다. 우리와 만난 김혁철 연구사는 《우리 공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 수 있게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았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구형도측정장치를 통과한 공이 림성도검사장치와 물흡수력검사장치를 거친 다음 공발사기에서 수천번이나 발사되어 그 성능을 검사받게 된다고 한다. 마침 검사장치들에 추구구의 검사결과가 현시되었는데 그 수값들은 거의 국제적기준에 도달하였다.

공장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장식하지배인은 《앞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을 더 세차게 울려 체육강국으로 질주하는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공장의 건물벽면에 부착된 《대성산》 상표를 바라보느라 《대성산》 상표의 체육기자재들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일어날 놀라운 성과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김철호

세계과학원회원이 된 청년과학자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광현

《면밀한 조사와 추천, 선출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2015-2019년기간에 해당한 임기의 세계과학원 청년회원(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선출되었음을 기쁘게 통보하는바입니다.》

지난해 7월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김광현박사가 세계과학원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의 한대목이다.

여러 대륙들에 지역사무소들을 두고있는 국제적인 기관인 세계과학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매개 지역사무소들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5명의 청년회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공화국의 김광현박사가 그 중 한명으로 뽑힌 것이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전도양양한 과학자가 된 김광현박사.

자강도 만포시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강계시에 있는 제1중학교를 거쳐 리과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후 당시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척되고있던 레이자연구부문에 대담하게 뛰어 들었다.

그는 조국에서의 연구사업과 유럽의 연구소에



본사기자 홍범식

장애자녀성을 통해 본 인권면모

얼마전 고국에 갔던 나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소학교를 참관한적이 있었다. 해빛밝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 어린 학생들 가운데서도 쌍둥이오누이(박현경, 박현웅)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학급동무들 앞에서 제가 쓴 일기를 발표하는 현경이의 모습도 귀여웠지만 수학문제를 남먼저 풀고 으쓱해하는 현웅이의 모습도 참 대견했다. 알고 보니 그애들의 아버지는 과학자이고 어머니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나를 놀라게 했다.

무릇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천대와 멸시, 불행과 눈물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나라 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이다. 하물며 그러한 부모들을 둔 자식들의 처지야 더 말할 필요치 않다.

하지만 이 세상 행복은 저들이 독차지한듯 구경없이 명랑한 쌍둥이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안내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쌍둥이의 어머니 윤정임녀성이 태어나 녀달만에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었다는 것, 두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것지만 나라에서 온갖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고 따듯이 돌봐주어 장애인으로서의 설움을 모르고 살아오고있다는 것, 다 자라 시집갈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 한평기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할 처녀의 얼굴에 그들이 질세라 일생을 같이하려는 청년의 진정은 처녀를 감동시켰고 그후 행복한 가정에서 이들과 사이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

세상에 이렇듯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는가. 감동깊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고싶어 나는 윤정임녀성의 가정을 찾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그의 얼굴에서는 장애인일만에게 흔히 불수 있는 시름의 그늘을 찾아볼수 없었다. 엄마의 치마자락에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었다는 것, 두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것지만 나라에서 온갖 치료대책을 다

시기 온 가족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으로 들어왔다. 지금도 나는 구두땀기름 하는 아버지에 매달려 살던 우리 가정이 남녘땅에 그냥 남아있었다더라면 불구자인 내 딸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가 생각하며 몸서리치곤 한다. 성한 사람들도 살기 힘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장애인 우리 딸은 피어보지도 못한 채 불우한 생을 마쳐왔을 것이다.》

윤정임녀성도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우리 자식들은 내가 낳았을뿐 나라에서 말이 키워주었다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둔 자식이라고 고운 옷이 생겨도, 별식이 생겨도 남만 저 안겨주며 친자식처럼 돌봐준 락아소 보육원들과 유치원, 소학교 선생님들, 정다운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적 시곤 한다고...

정녕 장애자녀에서 나라의 특별한 보호속에, 헤켄속에서 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것이 복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통하여 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생각조각 할수 없는 북사회의 우월한 인권면모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재미동포 고진근

요평양승 명외품, 명왕품

누구나 《철쪽》 상표 양말을 좋아한다

양말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이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하는 《철쪽》 상표 양말들은 사용자들의 정서와 미감, 신체적특성에 맞게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철쪽》 상표 양말은 남녀별, 나이별, 계절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형태와 색깔, 문양이 다종다양하다.

녀자용양말만 해도 처녀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문양의 양말도 있고 중년부인들이 좋아하는 은근하고 세련된 색깔의 양말, 발진등은 그물모양으로 되고 발바닥은 슬림에 잘 걸리게 만든 양말, 발바닥과 발진등이 그물모양으로 된 양말, 부드럽고 폭신한 양말 등 다종다양하다. 남자양말들도 땀을 잘 빨아들이는 재질로 만든것을 비롯하여 색깔과 문양, 재질이 각각 다르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낀듯 고운 색깔의 아동양말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

아하는 녀구리, 곰둥어, 《키리》와 《뽀》를 비롯한 만화에서 나오는 짐승그림들도 새겨져있다. 이 공장에서는 체육인들을 위한 양말들도 만들고있다. 제17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공화국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이 공장에서 만든 선수용양말을 신고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양말의 질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뛰어나 모두가 좋아하였다고 한다. 축구선수용 양말의 발목부위는 땀을 잘 빨아들이는 재질로 만들고 발바닥과 발진등을 락걸하는 조임띠를 만들어주어 운동할 때 양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장편지부분은 데르론인견사로 만들어주어 넘어져도 슬림에 잘 걸 디도록 하였으며 운동감을 더 높여 준다. 락구선수들이 신는 양말도 발바닥의 중간부분에 조임띠를 주어 락구를 칠 때 양말이



본사기자 김영숙

자 위 의 핵 과 북 남 관 계

6월 25일은 미국에 의해 이 땅이 참혹한 전란에 휩싸인 때로부터 66년이 되는 날이다. 일요일의 그 새벽,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 3년간이나 우리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을 들썩인 미국의 죄행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강요하고있는 미국을 단호히 징벌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역적패당은 민족의 존엄이고 힘인 공화국의 핵을 어찌지 못해 지랄발광하며 별의별 꾀변을 다 내돌리고있다.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해친다.》는것도 가장 파렴치한 흑백전도의 극치이다. 얼마전 제20대 《국회》개원

연설이라는데서도 박근혜는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현충일 추념사》라는데서는 《북의 핵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악에 받쳐 내뱉었다. 북이 핵을 포기해야만 남북관계가 개선될수 있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도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떼를 쓰는 박근혜의 망발은 남북관계를 완전파탄으로 몰아간 범죄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한갓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야말로 동족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에 핵공포증까지 겹쳐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공

화국의 핵과 북남관계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핵때문에 북남대화도, 관계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떠들고있는데 하다면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공화국이 자위의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에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핵이 출현하였다. 미국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남조선에 핵을 반입한 때로부터 그수가 1970년대말에 이르러 1000여개에 달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은 북을 직접 겨냥한 핵으로 존재해왔다. 미국은 공화국을 《핵선제타격대상》명단에 빼놓지 울려

놓고 핵폭탄투하연습도 뻔질나게 벌려왔으며 핵전쟁모의시합도 부단히 하여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3대핵기동》으로 자랑하는 《B-52H》호핵동력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위협하고있다. 북남관계와 겨레의 안전을 해치는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핵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물론 온 겨레의 생존을 매일 매 시각 위협하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핵에 대항하여 자위의 목적으로 만든 동족의 핵에 대해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이라 하고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꾀변인가.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는 남조선당국의 주장의 허황성은 공화국의 핵의 성격과 사명을 들어다 보아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이미 루차 천명되바와 같이 공화국의 핵은 철두철미 자위의 핵이고 그 과녁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부단히 위협하고 압살의 몽둥이를 휘두르고있는 미국에로 향해있다. 공화국은 자기의 핵이 동족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대 대해서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세계가 지켜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강국건설

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남조선당국이 대결이 아니라 통일의 동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것을 호소하였었다. 공화국의 핵은 남조선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발발위협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남조선인민들을 포함한 겨레의 안전을 지켜주고 북남관계의 자주적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이것이 남조선당국이 적대적이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여 보지 못하고있는 《북핵》의 진면모이다. 공화국의 핵을 북남관계와 억지로 련결시키고있는것은 지나온 조선반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허황성이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핵때문에 북남관계가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는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오래전인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북핵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소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과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전진시키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에 의해 그속에서도 북과 남은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고 통일력사에 금문자로 빛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는 사변을 이루어왔다. 막혔던 하늘길, 땅길, 배길이 열리고 각계층의 래왕과 협력으로 6.15시

대의 북남관계는 수년간이나 활기있게 전진하였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북남관계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좌우되는것이 결정코 공화국의 핵보유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이다. 공화국의 《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조선당국의 무지막직한 망동은 결국 대화도 안하고 협력도 안하며 북남관계개선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장에는 남조선천기보수패당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책동이다. 그들이 《북의 핵포기》를 목이 터져라 쫓쳐대고있는 진짜목적은 동족을 무장해제시켜 체제대결,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이다. 이 비렬한 목적달성을 위해 리명박은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6.15의 공동 탑을 모두 무너뜨리고 대결의 한파를 몰아왔으며 현 남조선집권자역시 북남관계를 완전과국상태에 몰아넣고 동족의 목을 조이려고 《제재공조》를 부르짖으며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현실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민족의 통일열망을 안중에도 없이 동족대결의 불순한 목적만 추구하며 외세의 사냥개가 되어 돌아치는 역적패당을 통채로 들어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허영준



외세 《공조》가 초래할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가 어찌하여 70년이 넘도록 갈라져있는가.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또 외세는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려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열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반통일적인 외세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외세에게는 조선의 분열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켜 저들의 패권적이익을 실현하려는 흥심만이 있을뿐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자주적위업이다.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며 생명선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껏 퍼를 나눈 동족과는 등을 돌려대고 침략적인 외세와는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봉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늘음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2012년 《대통령》선거때부터 《〈한〉 미동맹강화》를 부르짖은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의 뒤받침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부터 찾아가 《피를 흘린 혈맹》이니, 《새 〈정부〉는 〈한〉 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온갖 교태와 야양을 다 떨었다. 그리고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대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한〉 미공조분쇄를 노린 대남격안기》, 《국제적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외공세》니 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어대고있다. 특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핵문제》와 《북인권문제》를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 《공조》를 이루어보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핵포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신호》를 보내고 《결정적인 공조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포함한 국제적압박도수를 높여야 한다.》느니, 《체제변화 유도》니 하는 갖은 대결악담들을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다. 바로 얼마전에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의 앞길을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저들의 죄행은 당면해 있지 않다고 《북의 핵개발이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느니, 《〈지금은 북비핵화라는 과제달성을 위한 의지의 싸움이 벌어지고있는때〉라느니 뭐니 하며 《북핵공조》나발을 목이

터져라 고아댔다. 세계 여러곳을 싸다니며 그 무슨 《인권의 보편적가치》니, 《국제사회의 우려》니, 《협력》이니 하고 실세없이 외워대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 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보수패당이다. 어디 이뿐인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느니, 《주변나라와 세계도 동의》 해주어야 한다느니 하는 얼빠진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통일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늘음을 벌려대고있는것도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통일외교》늘음은 한마디로 《저들주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보려는 얼빠진 기도의 산물로서 조국통일위업의 자주적성격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공화국대결 《공조》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봉괴》, 《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풀이나 수습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겨레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고 동족압살을 노린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 《국제공조》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역

해 외 인 사 들 평 화 협 정 체 결, 미 군 철 수 를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평화통일국제토론회에 참가한 해외인사들이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6.15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평화통일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분열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저들의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을 갈라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 70여년간이나 분열과 적대관계,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리유도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는것이 까밝혀졌다고 말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분열을 끝장내고 전쟁위기가 아닌 평화를 가져오자면 그 근본원인인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는것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쟁반대와 인종차별반대를 위한 즉각행동련합》 대변인은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미국에서도 거리시위 투쟁이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환영하고 이 땅의 민중을 괴롭히는 미군이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프랑스의 한 력사학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힘으로 짓누르고 억압하며 착취하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북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북이 자기의 자원과 핵을 개발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데

표가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6.15공동선언 리행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랑독하였다. 성명은 평화통일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그동안 6.15공동선언발표 16돐기념 민족통일대회,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일집회 등의 투쟁에 참가하여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6.15공동선언리행과 평화협정체결에 국제적인 련대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미군철수가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자면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은 전쟁방화의 주범

세월의 흐름은 땅각을 동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있는 것이 있다. 미국이 남조선 호전세력들을 부추겨 새 생활을 한껏 누리려는 공화국의 평화적주민들에게 전쟁의 재난을 들씌웠던 지금으로부터 66년전인 1950년 6월 25일이 바로 그날이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갖은 재난을 들씌운 미국의 죄악은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특대형전쟁범죄이다. 신천의 백두어린이묘를 비롯한 수산리와 거제도, 제주도와 대전과 로근리, 참변과 같이 미국이 감행한 조선전쟁은 무차별 폭격, 대량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전쟁사에 들어보기 힘든 《물살》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살륙과 범죄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악마의 제국 미국은 조선인민을 잘못 알고 덤벼들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세계 《최강》의 신화가 조선의 이 름없는 산야에 통째로 구겨박히고 건국이라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이 빠져 무를 끊고 항복까지 바치지 않으면 안된 미국이다.

조선전쟁은 《미국식 평화와 자유》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발가벗기는 반면에 아직은 세계가 알지 못했던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

여주는 계기로 되었다. 전쟁의 포화는 덮고 정전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그 때로부터 반세기도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은 한시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수많은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해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복합전쟁 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 놓아 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 이 땅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여왔다.

최근에도 미군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서해열점 수역도 부족하여 한강하구까지 복합도발의 침에 한 수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있으며 각종 핵전략 폭격기들과 핵잠수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복합전쟁준비를 다그쳐대고있다.

지나온 조미대결의 역사적과정에서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면서 힘의 만능론에 환상하여 세계 패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친듯이 발광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이야말로 제국을 줄 모르고 날뛰는 가소로운 전쟁부나비들이 아닐수 없다.

수십년에 걸치는 미국의 핵위협은 공화국을 무시할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만드는 역효과만 가져왔으며 그로 하여 오

늘날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1950년대에는 비할바없이 막강하게 되었다. 반세기 훨씬 이전에 미국은 창건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의해 처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오늘에 와서 미국이 맞선 상대는 수소탄과 각종 핵운반수단까지 가진 동방의 핵대국이다. 며칠 전에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상대지상중거리 전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하는 사변을 이루어냄으로써 태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위력 한 핵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주고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미국은 뽀뽀스럽게 그 누구의 핵을 문제시하며 부질없는 소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전쟁의 최근 미군을 한시바삐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현시기 세계는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되는 장본인이자 전쟁광신자인 남조선강점 미군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에게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조미대화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가 급선무》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나라의 분열을 지속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며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틀고앉아있는 한 조선반도의 침에한 긴장은 언제나 해소될수 없다.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 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앞에 그 어떤 핵위협이든 통할수 없게 된 오늘날의 현실적조건에서 미국은 조선전쟁의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새기고 대조선정책전환의 길에 들어서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계속적대적인 대조선제재와 핵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공화국이 이미 천명했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영영 사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8~9월경이면 북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9월까지의 북과 어떤 교류협력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북제재》와 압박에 그토록 모지름을 쓰는가 하는 그들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들여다보인다.

남조선당국은 9월쯤이면 공화국이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꾸리라 생각하고있다. 그만큼 저들이 미국과 함께 주동이 되어 벌리는 《대북제재압박》이 보통 나라같은 면 견디기 어려운 《고강도제재》이고 압박이라는 소리이다. 공화국이 어떤 상대인가 하는데 대해 아직도 똑똑히 모르는 어리석은 망발이 아닐수 없다.

《고강도제재》를 실시해서 6개월쯤이면 굴복한다? 너무나 천만의 말씀이고 천진란만한 꿈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공화국이 제재를 받아 굴복할것 같으면 애당초 자위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사 6개월이 아니라 제재가 6년, 붕괴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종말》을 떠들며 공격의 총화살을 반미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에 돌리었다. 저들의 거수기, 추종국가들을 총동원하여 제재소동에 매달리고 대조선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압살의 쇄살을 조하였다. 그때 조선은 실상가상으로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령도자

란듯이 진입하였다. 자기 령도에서 최악의 역경도 이겨내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온 공화국이, 오늘에 와서 수소탄과 각종 핵운반수단까지 갖춘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갖은 제재수단을 동원하며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는가. 너무나 말도 안되

를 잃고 수년째 자연재해도 당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패배를 울리면서 《3.3.3붕괴》설까지 내들렀었다. 북조선이 빠르면 3일, 늦어서 3년이면 《붕괴》된다는 설이었다.

결과를 어떻게 되었던가. 붕괴된것은 조선이 아니라 《붕괴》설 그 자체였다. 공화국은 모진 제재와 압살소동을 이겨내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리며 강성국가건설에 보

아부었다. 분열과 전쟁,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수십년 동안 강요된 그 처욕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씻어내고자 령도의 6.15를 탄생시켰다.

2000년 6월 15일, 바로 그날에 민족분열사상 단상

처음으로 열린 북남수뇌 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 핵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마련되었다.

분열의 원한이 서리서리 감긴 삼천리강도에 화해와 단합의 봄을 안아오고 얼어든 가슴마다를 민족의 통일열기로 녹여준 6.15가 있어 미국이 박멸시키려고 전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소나기를 쏘

압박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나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갖은 위협소동에 초강경군사적대응조치로 맞서고 비렬한 제재에 자강력의 기치를 들고 맞받아 나아가며 이 땅우에 령도의 승리와 전변의 새 령도를 수놓아가고있는 공화국이 다. 제재가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공화국의 역

센 자강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반미대결의지가 더욱 굳세질 뿐이다. 며칠전 6월의 하늘가에 기세차게 뿜어져올라간 지상대지상중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의 거대한 불출기는 제발 핵을 포기해달라고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이 장쾌하게 터친 명백한 대답이다.

동방의 핵대국으로 치솟은 공화국에 대해 어떤 핵포기미련을 가지 않는것은 하늘의 해가 떨어

시

6월의 서리밭

김 윤 식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잊을수 없고 잊어서는 안될 한어름의 폭양에도 우리 맘속엔 서슬푸른 증오와 분노의 서리밭이 돈나니

평화롭던 이 땅의 거리와 마을들에 전쟁의 참혹한 불구름 몰아온 미제 이 나라의 산과 들을 주검으로 뒤덮고 골짜기와 강들을 피로 물들인 미제 철부지아이들 뛰놀던 유치원도 학교도 적십자가발을 내건 병원도 야수들의 사격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에 주린 전쟁도발자들의 군화발에 짓밟힌 이 땅은 그 어디나 신천과 로근리였다

미군놈들만 아니었다면 이 땅에 전쟁이란 없었으리 6.25는 평범한 일요일로 흐를수도 있었으리

그날의 포성이 과연 세월속에 사

라졌던가 오늘도 저 남북에서 씩없이 터져 나오는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 6.25는 흘러간 추억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6.25전야에 산다

어느 해 어느 달인들 화약내 뿜어대는 전쟁연습 그친적 없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매국역적의 무리 우리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그놈들이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안녕은 없다 민족의 숙원 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겨레여, 우리 하나로 뭉쳐 철천지원수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

오, 미제를 영영 몰아낸 그날에야 삼천리엔 평화가 깃들리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8천만의 가슴에 서리밭 치는 증오 6월의 증오 그 서리밭은 녹지 않는다

누가 권리는가, 기강이 보여줄것이다

60년이나 지속된다고 해도 공화국은 지금의 핵보 유태도를 추호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병진조선의 길을 걷고 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제재는 새로운것이 아니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지금까지 받아온 제재이다. 미국이 자국의 법을 휘둘러 불법제재를 가한것도 이 부 헤아릴수 없고 유엔을 내세워 벌려온 별의별 제재소동에도 공화국은 끄떡없이 견디어왔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국은 동유럽사회주의가

를 잃고 수년째 자연재해도 당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패배를 울리면서 《3.3.3붕괴》설까지 내들렀었다. 북조선이 빠르면 3일, 늦어서 3년이면 《붕괴》된다는 설이었다.

결과를 어떻게 되었던가. 붕괴된것은 조선이 아니라 《붕괴》설 그 자체였다. 공화국은 모진 제재와 압살소동을 이겨내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리며 강성국가건설에 보

는 소리이다. 지금 핵을 가진 나라들치고 스스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선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하물며 공화국의 경우에야...

핵은 공화국의 자위이고 생명이며 천금같은 미 래이다. 침략적인 미국에 맞서 자위의 핵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은 공화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공화국은 제재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드리면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제재와

질수 있다고 보는것과 같은 천치바보들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지금 공화국의 경제는 상승일로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갖은 제재에도 경제는 날로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이 윤택해지고있다. 어디가나 차 넘치는것이 제형으로 만든 질 좋은 국내산제품들이고

말해 무엇하랴.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도 《6개월 제재로 북이 무릎을 꿇으리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세전망은 정책이 아닌 일방적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비난과 조소가 울려나오고 있다.

2016년은 조선이 굵어든 해가 아니라 자기 령사에서 가장 강해지고 흥해지며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게 될 해, 말그대로 조선의 해로 될 것이다. 2016년의 달과 달은 세상이 똑똑히 보듯이 조선이 승리의 통장훈을 띤 달도 안되어 웅장하게 룬 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령명을 부르고있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이 만부하의 동음을 울려 전기 가 광광 나오고 맑은 물이 어디 가나 출렁이는 사회주의협동법들은 올해의 초 그러보게 해주고있다.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신념의 노래 부르며 승전고를 울린 공화국 일진대 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선 지금에 와서는 더

를 향해 넘겨주리며 북침 핵전쟁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여기는 반통일세력은 민족의 소중한 전취물들을 백지화하고 미국의 꼭두각사가 되어 동족대결의 미친 칼춤을 추고있다.

최악의 사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보면 서 령사의 갈피에 새겨진 6월이 우리 겨레의 심장을 두드리는 웨침이 있다.

-미국, 네가 없어야 조선반도가 편안해지고 우리 민족이 행복해진다. -

-6.25가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거든 귀중한 6.15를 살려야 한다. -

이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6.25의 절구이고 잃어버릴수 없는 6.15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본사기자 박철남

진실이 알려지는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대면을 위해 유인람치된 공화국주민들을 법정에서 출석시키는데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법정대리인을 내세우므로써 재판관을 무산시켰다. 하여 《민변》이 피해자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려던 람치된 주민들의 신상과 그 무슨 《자진탈북》의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확인을 가로막은 정보원과 통일부는 저마끔 나서서 《인권침해》니, 《적법한 보호》니 뭐니 하는 꾀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새누리당》 패거리들과

지 함해하여 《〈민변〉이 왜 〈탈북자〉를 법정으로 끌어내려하는건지 저의 의의가 의심스럽다.》, 《〈민변〉의 주장은 북에 리용 당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저들의 반인륜적죄악이 유인람치된 공화국주민들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극도로 당황망조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써 그자체가 저들의 유인람치만행을 인정한것이나 같은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는 남조선으로 끌고가자마자 공화국주민들의 신상을 공개 하였던 남조선당국이 피해자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민변》의 요구를 거

부할 하등의 리유가 없는 것이다. 보수패당이 유인람치한 공화국주민들을 통해 진실이 알려지는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는것은 그대 공화국주민들이 자식바 《보호기간》을 6개월 이상 늘이고 그 이후에도 《탈북자》들이 가게 되는 《북리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보내지 않고 정보원이 관할하는 《북리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자진탈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며 보수패당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을 생리별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얼굴을 먹칠까지 하려는 회세의 패륜아, 친인공노할 범죄집단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는 며칠전 《국무회의》라는데서 또다시 《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람치, 레로를 기도하고있다는 첩보가 계속 입수되고있다.》, 《국제레로조직과 직간접적으로 련계된 북의 레로가능성도 우려되고있는 상황》이라는 말갈지 않은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동족대결에 환장하다 못해 백주에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

계파싸움으로 망해간다

남조선에서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계파싸움으로 몰살을 되게 앓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있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이 계파간의 갈등을 없애고 당의 화합과 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이날 회의에 빠졌지만 명색뿐이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싸움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16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당선자들의 《일괄박당》 결정을 내린것을 계기로 친박계와 비박계는 더는 화합할수 없는 위와 교양이 판게가 되었다.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이 《비대위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겨우 사대수습을 하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였다. 《일괄박당》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인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며 당무에 복귀했기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친박과 비박사이의 전

쟁마당으로 변해 다 망한 《새누리당》의 집안꼴을 잘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정당하다고 옹호하자 비박계 의원들은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또 당사자인 사무총장은 자기에 대한 사퇴요구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이날 회의에 빠졌지만 명색뿐이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싸움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16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당선자들의 《일괄박당》 결정을 내린것을 계기로 친박계와 비박계는 더는 화합할수 없는 위와 교양이 판게가 되었다.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이 《비대위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겨우 사대수습을 하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였다. 《일괄박당》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인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며 당무에 복귀했기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친박과 비박사이의 전

장마당으로 변해 다 망한 《새누리당》의 집안꼴을 잘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정당하다고 옹호하자 비박계 의원들은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또 당사자인 사무총장은 자기에 대한 사퇴요구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이날 회의에 빠졌지만 명색뿐이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싸움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16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당선자들의 《일괄박당》 결정을 내린것을 계기로 친박계와 비박계는 더는 화합할수 없는 위와 교양이 판게가 되었다.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이 《비대위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겨우 사대수습을 하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였다. 《일괄박당》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박계인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며 당무에 복귀했기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친박과 비박사이의 전



오즘 박근혜에게 새로운 오명이 또 붙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성파자》, 그 무슨 《성과년봉제》라는것을 도입하려는 박근혜에게 집권기간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는 그 여자부터 《대통령》직에서 해고해야 한다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담긴 오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부름치고는 듣기에 도 거북한 수많은 별명을 달고다니는 박근혜에게 날이 갈수록 오명, 별명이 늘어나고있으니 참 가련한 신세입니다. 별명은 자기의 본이름 외에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본명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축복이라면 별명은 모습, 성격, 행동, 말씨 등 개성특징이 반영되고 사회관계속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을 평가할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별명을 가질수 있지만 여성으로서, 그것도 가장 추하고 악한오명, 별명만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여자는 아마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것입니다. 그래도 천연스레 뻘뻘스런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는 아마 요녀이거나 마녀일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첨단세계를 밝아가는 오늘에 전설이나 우화속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요녀, 마녀가 바로 남조선집권자입니다. 이런 억지가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달아준 별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 박근혜의 부실한 행실은 그만두고 남조선인민들이 어떤 별명들을

선사했는지나 몇가지 보고로 합시다. 《얼음공주》, 《유아독존》, 《고집불통》, 《팽혈동물》, 《치마두른 현대판 변학도》 등은 오만과 독선, 독단밖에 모르는 박근혜를 가르키는 별명입니다. 《진도개 물어뜯는 정신》으로 일하라고 아페것들을 강박하고 제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속치마 같이 입맛 바꾸어치우며 《원썬》, 《단두대》, 《배

대란》, 《등륙금대란》, 《보육대란》 등 인민들의 수난을 늘여만 갑니다. 항간에 《닭아 닭아 그네 닭아, 청와대서 노는 닭아, 꼬꼬대 꼬꼬 닭아 소리에, 서민들만 죽어가네...》라는 노래가 파다하게 퍼지고 《박근혜가 한 일은 젊은이들을 암담하게 만들고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것뿐》, 《나라꼴 개판이다.》, 《은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마귀년》, 《병신년》, 《나에게 죽창을 달라.》라고

변신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도발》, 《옹징》 등 어물전 매편은 병든 까마귀고함만 칩니다. 미국에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파산에 몰아넣은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북의 돈줄》을 차단한다고 북과 남이 애써 마련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였으니 《빠대가 없는 회충》이라고,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무엇이요 그 해결방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력사의 발전은 녀성들의 자유, 진보와 정비례한다.》는 명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남조선을 《유신》의 암흑시대 돌리세우는 회세의 마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으로 몰아가는 판타지, 우리 겨레와 인류의 지향과는 반대로만 하는 악녀로 력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돌리세우려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암적존재입니다. 전설이나 우화속의 요녀나 마귀는 항상 사랑과 정의의 힘에 의해 망하고 사라집니다. 사랑과 평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것은 인류의 녀원이요 지향기때문입니다. 《치마두른 늙은 요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요물》인 박근혜가 아무리 요술을 쓰고 마술을 부리며 력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여도 우리 민족의 사랑의 힘, 정의의 힘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김정혁

만필 마녀의 종말

절규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우화속의 요녀, 마녀는 마술의 힘을 빌어 변신술을 잘 씁니다. 박근혜도 그런 우화들을 통달했는지 변신하는 데서는 명수입니다.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면 사슴의 웃음을 짓고 청와대에 기어올라 서술이 푸르딩딩해지는 독사가 되고 《세월》호참사가 되고 《세월》호참사 때 본것처럼 제가 빚어낸 재난으로 육육하는 인민들앞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짜내지만 해외에만 나가면 칠면조처럼 하루에도 웃을 몇벌씩 갈아입고 웃음만 흘리는 구미여우가 됩니다. 요녀, 마녀 박근혜는 별의별 추물로 변신하여 북남관계를 아예 망가뜨렸습니다. 미국앞에만 서면 꼬리를 흔드는 삼살개, 《대북제재》, 《압박》, 《북핵위협》이라는 미국의 소리를 곧잘 외우는 앵무새가 되고 동족에게는 암승냥이로

도 모르면서 《북핵, 북핵》하고 고아대며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하느라 돌아섰지만 《교재싸움에 치운 새우신세》, 《거인들의 공놀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난쟁이신세》밖에 안되었다고 하면서 《싸움질만 하는 치마두른 장애》, 《이 땅에 화만 가져오는 재수없는 주둥이》라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박근혜의 노는 꼴은 꼭 카멜레온이고 하는 행동은 모두 청개구리입니다. 《마귀년》, 《병신년》, 《팽혈한》, 《악녀》, 《마녀》 등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별명들에도 《악어》, 《삼살개》, 《독사》, 《까마귀》 지어 《회충》 등 녀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로 표현되는 박근혜입니다. 무릇 녀성은 생명을 창조하고 안아키우며 인류의 생활을 가꾸고 꽃피우는 존재로 일컬어왔습니다.

로동악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40만 로동자 총파업을 단행할것이다

남조선로동자 10만여명 공동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의 산별로조들로 구성된 량대로총공공부문로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의 여의도 공원에서 당국의 반로동자적인 악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소속 로조원 10만여 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성과년봉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권》이 《저성과자》 딱지를 붙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한 강제퇴출제를 실시하려고 성과년봉제도 도입을 강요하고있는가 하면 금융공기업의 실체책임을 국민과 로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성과년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하는데 분노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밝혔다. 《저성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가장 큰 저성과자는 박근혜》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금융공기업을 넘어 민간은행에까지 성과년봉제를 강요하는 불법행위와 국민에게 모든 실체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40만로동자 총파업을 단행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국회》앞까지 행진을 하고 반로동자적인 성과년봉제의 즉시 철회와 조선업, 해운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진상규명, 장본인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